

“오늘은 지구의 날! 화장품 공병 재활용 화분 드려요”
테라사이클,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그린사이클 화분 나눔 활동 참여

- 테라사이클, 22 일 지구의 날 기념해 아모레퍼시픽과 ‘그린사이클 화분 나눔 활동’ 참여
-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한 ‘그린사이클 화분’ 제작해 지역사회 기증 활동
- 아모레퍼시픽과 올해로 3 번째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업사이클링 진행



[보도자료 사진 = 테라사이클 제공]

(2021년 4월 22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이 지난 21일 지구의 날을 맞아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그린사이클 화분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것으로 용산구 한마음 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테라사이클,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용산구 소재의 연합 봉사단 용산 드래곤즈가 함께 그린사이클 화분 만들기에 동참했다.

그린사이클 화분은 아모레퍼시픽그룹 고객들이 모아준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해 예술과 접목시킨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전국에서 모인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세척 및 분쇄한 뒤 고강도 콘크리트(UHPC)와 섞어 제작됐으며 보태니컬 디자인 브랜드 그룹 틸테이블이 디자인하고 UHPC 전문기업 디크리트가 제작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화분이 지역사회 어린이집 등에 전달돼 미래세대 주역이 될 아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테라사이클은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과의 협력에 이어 테라사이클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도 화장품 공병이 물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2016년 12월 아모레퍼시픽의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프로젝트 협력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한국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가능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그린사이클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다시 화장품 용기에 투입하거나 화분, 건축자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